

새 사람 (*kainos anthropos*)

오늘은 새사람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니라

4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even so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이 구절에서 **새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과 새사람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새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예전에는 이런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변하여 이런 이런 삶을 살아 가고 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새사람은 *kainos anthropos* 라고 하여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kainos anthropos 는 ‘새로운 인류’ 가 문자적 의미로, 아담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lebel 에 의해 사람을 구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pushikikos*, *sarkikos*, *pneumatikos* 입니다. *Pushikikos* 는 중생치 못한 자연인으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natural man* 입니다. 다음에 *sarkikos* 는 우리 말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canal man*, 그리스도는 믿지만 아직 장성치 못한 자를 말합니다., *pneumatikos* 영에 속한자로서 *spiritual man* 이며 새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 : 14 **육에 속한 사람**(*pushikikos*)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1 Corinthians 2:14 (KJV)

¹⁴ But the **natural man**(*pushikikos*) receiveth no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unto him: neither can he know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고린도전서 3 :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pneumatikos*)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sarkikos)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 Corinthians 3:1 (KJV)

¹ And I, brethren, could not speak unto you as unto spiritual(πνευματικός=pneumatikos) but as unto carnal(σαρκικός= sarkikos), even as unto babes in Christ.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spiritual man, punumatikos 입니다.

〈새사람(*kainos anthropos*)〉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이 물려준 타락한 성품인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갑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치 못한 자연인으로 육에 속한 사람, Pushikikos 입니다. 그렇지만 새사람은 첫 아담, 땅에서 온 사람의 후예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후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1 Corinthians 15:46 (NIV)

⁴⁶The spiritual did not come first, but the natural, and after that the spiritual.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δεύτερος ἄνθρωπος(deuteros anthrōpos)로 둘째 인류, second humanity 가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second humanity 은 하늘로서 왔다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하늘로 부터 왔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둘째 사람은 하늘로 부터 왔다고 하였습니다. 인자와 둘째 사람은 같은 의미입니다. 둘째 사람은 전인격이 하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지만,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내적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물려준 타락한 성품인 육이 없습니다. 육이 세상을 살아 가면서 형성한 인격인 옛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100% 영적인 분이십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내적 실존 상황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생명 가운데 행한다, 새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빼놓고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새사람의 인격의 반만 하늘로 부터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90% 만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100% 그렇다는 말입니다. 새사람은 몸만 빼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교체된 새로운 인격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지시해 줍니다.

새사람(*kainos anthropos*)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인간의 새로운 내적 실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윤리적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사람을 장성한 그리스도인,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인격의 사람(롬 6:4), 영에 속한 사람(고전 3:1), 온전함 사람 (엡 4:13)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사람(엡 4:23)이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여기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100%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지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00%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바울로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다’ 하며 이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사람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로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새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부모로부터 온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성품,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의 새사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갑니다.

이 새사람은 세상적인 많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좋은 성품만 물려 받은 땅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새사람은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라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새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 : 15 ----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으니

[15]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enmity, which is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that in Himself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thus establishing peace,

에베소서 2 : 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our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새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사람을 **지었다**는 말로 ktizo 를 사용했습니다. 이 ktizo 는 장인(丈人)이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새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새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11 : 19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¹⁹ I will give them one heart, and put a new spirit within them;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from their flesh and give them a heart of flesh,

그런데 사실 새사람은 사도 바울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소화하여 자신의 이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새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방식을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현 방식>

마 9:14-17 ; 막 2:16-22 ; 눅 5:33-39

누가복음 5 : 33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누가복음 5 : 34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5 : 35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 : 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5 :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누가복음 5 :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 :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은 새사람을 새부대, 새 포도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 보십시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하여 질문을 한 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종교적 자세에 있어서는 자기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 :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은 다수로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소수를 제압하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돌의 긴박성이 있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초연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他)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가?

예수님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깊은 진리를 설파하고 계십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사용하여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초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은 공격적이 아니고 방어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공격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 비판할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눅 5:39 에,

누가복음 5 :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포도주는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금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통이 부질없는 일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려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십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묵은 포도주가 좋은 면도 있지만, 새 포도주, 즉 새로운 신앙 운동은 묵은 전통(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새 부대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처럼 의무에 의해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식에 대한 유대교의 유익한 점을 수용하고 기독교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은 같지만 본질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나왔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면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묵은 포도주(유대교 전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눅 5:39), 새로운 전통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만, 유대교에 있는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선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용해야 할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가 아직도 수용하고 있는 유대교의 부분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하여 공격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은 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에 대하여,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고데모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묵은 전통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요한복음 3 :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들을 연구하고 유대교적 관점에서 얻은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한계입니다. 낡은 부대 안에 있는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요한복음 3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하고,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피상적인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신 직설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고 하십니다. 네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하고,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도,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육을 가지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나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현 것을 고치는 개량이 아닌,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되는 것 같은 질적 변화를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6 :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니라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매주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랜 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성경과 교회 풍습에 도가 튼 종교인(宗敎人)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바로 이런 종교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을 보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적 직관은 니고데모의 이런 영적 상태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그림자는 볼 수 있지만 본체는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현상(Appearance)이 아닌 실재(Reality)를 볼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현상이 아닌 실재를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둘째 사람처럼 예수님 안에서 내적 실존이 바뀌어 새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을 가지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나아 한다!

예수님은 낡은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워도,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생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둘째 사람을 따라 내적 실존이 바뀌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은 다음 주로 이어지겠습니다.